



손연재 “결과보다 노력한 것 보여주고 싶다”

첫 공식훈련 소화...“개인적으로 광주서 좋은 연기 하고 싶어요”

내일 후프·볼·순 개인종합 예선...컨디션 조절이 첫 금메달 관건



리듬체조

“결과에 대한 욕심보다 노력한 걸 보여줄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준비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1·연세대)가 9일 2015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광주U대회) 첫 공식 훈련일정을 소화했다.

손연재는 이날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지하 2층 연습장에서 동료 이다예, 러시아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했다.

검은색 민소매 트레이닝복과 반바지 차림의 손연재는 음악에 맞춰 볼·후프 연기 동작을 하나하나 체크했다. 공을 바닥에 튀기며 회전하는 동작 등에서 실수가 나오자 연기를 멈추고 엘레나 니코피도바 코치의 조언을 들었다.

손연재는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강도 높게 훈련에 임했다. 훈련을 마친 뒤 인터뷰에서 “시험 때까지 계속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할 것 같다. 훈련량을 늘려야 컨디션이 돌아오는 것 같아 (훈련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치와 어떤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그는 살짝 웃으며 “컨디션이 처지다 보니 (코치님이) 빨리빨리 하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손연재는 전날 러시아에서 입국해 곧바로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들어왔다. 손연재는 “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에서 같이 온 선수들도 다 잠을 못 잤다. 다 (똑같이) 힘든 조건이라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11일 열리는 개인종합 예선에서 후프

와 볼 종목 순서로 연기한다.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종목인 후프로 대회 일정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프 종목이 가장 자신 있지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종목”이라며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미끄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며 철저한 모습을 보였다.

2년 전 카잔 대회에서 한국 리듬체조 사상 첫 유니버시아드 메달(볼 종목 은메달)을 따낸 손연재는 이번엔 색깔을 바꿔 첫 금메달에 도전한다.

그는 “사실은 모든 경기가 너무나 중요하고 큰 기대를 받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되지만 이러한 긴장감이 연기를 잘하게끔 만드는 요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내가 내 연기를 잘하는 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완벽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간다 보면 그들과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손연재는 연습 도중 자주 수건으로 공을 닦았다. 물을 마시며 손부채질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손연재는 “땀도 나지만 습도가 너무 높다 보니, 다른 선수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손연재는 국내 대회 출전이 주는 부담감을 드러냈다. 손연재는 “국내 경기는 할 때마다 적응이 안 된다. 그래도 (자주 국내 경기를 하다보니) 마음을 잡는 것은 빠르게 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광주U대회에서 좋은 연기를 하고 싶다. 결과에 대한 욕심보다는 제가 준비한 것을 보여줄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가 9일 오후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후프 연기를 훈련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의 U대회

- ▲육상=남자 200m 준결승(17시20분), 남자 높이뛰기(18시), 남자 200m 결승(18시20분), 남자 400m 허들 결승(19시), 남자 400m 결승(10일 19시30분, 유니버시아드 주경기장)
- ▲배드민턴=이음대 남자복식, 고아라·유해원 여자복식 32강전(10일 15시), 준준결승(11일 15시), 결승(12일 20시,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 ▲야구=남자 준결승(10일, 12시), 금메달 결정전(11일19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 ▲축구=여자 축구 준결승전(11시), 여자 축구 준결승전(16시30분·이상 나주 공설운동장)
- ▲골프=이정은·김아인 3라운드(10일 7시)·4라운드(11일 7시, 나주골드레이크)
- ▲핸드볼=김은아·주희 8강전(10일 14시, 고창군립체육관)
- ▲사격=남자 개인 50m 소총3자세 결선, 남자 더블트랩 금메달 결정전(10일 14시45분·나주 전남종합사격장)
- ▲탁구=여자 단체 결승(16시30분), 남자 단체 결승(10일 18시30분·장성 흥길동체육관)
- ▲태권도=남자 58·80kg급, 여자 49·67kg급 결승(10일 18시), 남자 74·87kg 여자 62·73kg(11일 18시, 조선대체육관)
- ▲테니스=남자·여자 단식 준준결승전(9시), 남자·여자 복식 준결승전(9시), 남자·여자 혼합복식 준결승전(9시·이상 진월국제테니스장)
- ▲배구=남자 배구 준결승전(10일 20시), 여자 결승(11일 20시), 남자 결승(12일 20시, 영주종합체육관)

스코어보드

	한국	여자핸드볼	39 : 26		몬테네그로
	미국	야구	7 : 3		멕시코
	한국	남자축구	3 : 0		우루과이
	미국	남자농구	96 : 57		스위스

광주U대회 메달 순위 (8월 20시 현재)

순위	국가	금	은	동
1	대한민국	30	23	17
2	중국	21	14	10
3	러시아	17	24	28
4	일본	17	14	19
5	미국	13	9	10
6	프랑스	12	5	5
7	이탈리아	6	9	13
8	우크라이나	5	11	5
9	리투아니아	4	1	2
10	이란	3	2	4

김소희, 여자 57kg급 ‘금빛 발차기’

포르투갈 주양나 다 실바 제압...선전U대회 3위 아쉬움 털어



태권도

여자 태권도 겨루기 최강자 김소희(22·삼성에스원)가 광주U대회에서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기면서 지난 2011년 중국 선전U대회 3위를 설욕했다. 김소희는 9일 광주 조선대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57kg급 결승전에서 포르투갈 주양나 다 실바(여·20)를 6대 0으로 누르고 승리를 따냈다.

이미 준결승에서 2011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태국의 랑시아 니사이숨을 4대 0으로 침몰시킨 김소희는 특기인 오른발 돌려차기를 상대의 머리에 날카롭게 명중시키며 완승을 거뒀다.

1라운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던 김소희는 2라운드 47초를 남기고 뒤로 물러서는 상대를 적극적으로 쫓아가 오른발 돌려차기를 성공시키며 3점을 따냈다. 이어 3라운드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 선수의 머리를 주먹기인 오른발 돌려차기로 또다시 명중시켜 가볍게 승리를 따냈다.

남자 -68kg급에 출전한 류대환(21·경희대)은 아



쉬운 역전패를 당하며 은메달을 기록했다. 이날 터키의 아르올 베키에(19)를 만난 류대환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끝에 2라운드 상대 선수가 경고 2개를 받으며 1점을 먼저 따냈다. 하지만 3라운드에서 불과 32초를 남겨

두고 상대 선수의 발차기에 얼굴을 허용해 결국 1대 3으로 아쉽게 패배했다.

김대익(21·용인대)은 남자 -54kg급 준결승전에서 이란의 알민 하디포우르에게 4대 20으로 패배해 동메달을 기록했다. 여자 -47kg급에 출전한 유수연(18·용인대)도 준결승전에서 대만의 린안팅에게 0대 2로 아쉽게 패배하면서 동메달을 기록했다.

김소희의 선수는 “지난 2013년 카잔 U대회에서는 태권도가 빠져 참가할 수 없어 아쉬웠다”며 “최근 유럽과 아랍권 선수들의 기세가 무서웠는데 차근차근 경기를 잘 풀어나간 것 같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박기용기자 pbxer@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축 건물 천층 안과병원운영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 +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 운영동 방면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백운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새생명탄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